

GM 군산공장 폐쇄... 위기의 한국차 산업

완성차 27만여대 생산... 지난해 국내 시장 점유율 7.4%

현대기아차 생산비중 10년새 반토막... 수출 전망도 '흐림'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국내 완성차 생산·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제너럴 모터스(GM)도 끝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다. 한때 70%를 넘어섰던 현대·기아차의 국내 생산 비중도 40%대로 내려앉은 상태다.

◇27만대 생산하던 군산공장 폐쇄 = GM과 한국GM은 5월 말까지 완성차 27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한국GM 군산 공장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명절을 앞두고 군산공장 직원(2044명)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한국GM 측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적 첫 지구 노력으로서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협 지부는 이

날 오후 성명을 내고 "경영진은 명절을 앞두고 한국지협의 존립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결정을 노조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경영진의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군산시도 "군산 공장은 직원 2000여명과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1만3000여명으로 4인 가족 5만명 이상의 생계가 달렸다"면서 "그동안 범도민 GM차 구매운동, 올 뉴크루즈 전북도내 전시홍보, GM차 구매 결의대회 등을 펼쳐왔는데 사전에 한 마디없이 폐쇄결정을 내린 것은 '만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GM이 차지하는 비중(승용차+상용차)은 작년 기준 7.4%로, 현대·기아차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라는 점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국내 자동차산업 기반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

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현대·기아자동차 국내 생산 비중도 '반토막' = 현대·기아차의 국내 생산 비중은 지난 2006년 73.3%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44%로 떨어졌다.

현대·기아차의 국내 생산 비중은 지난 2012년 처음 50% 밑(49%)으로 내려간 이후 ▲2013년 45.7% ▲2014년 44.8% ▲2015년 44.8%를 거쳐 2016년 41%까지 추락했다. 지난해에는 중국·미국 등 현지 생산 차량의 판매가 워낙 부진했던 탓에 3% 포인트 정도 반등했다.

하지만 국내 생산은 2011년(347만6175대) 이후 317만4230대(2017년)~358만8893대(2014년) 사이에서 오르내리며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다.

현대·기아차가 국내에 신규공장을 건립한 적은 지난 1996년 아산공장이 준공된 이후 21년 동안 없었고 '증설'도 기아차 광주공장(2013년 6월)이 마지막이다.

◇올해 국내 차 생산·수출 모두 감소 전

망=이미 국내 자동차 산업은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당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18년 국내 자동차산업 전망보고서'를 통해 "내수는 전년 수준인 182만대(수입차 포함), 수출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257만대, 생산은 전년보다 1.4% 줄어든 410만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완성차 내수 판매량의 경우 지난해 156만202대로, 전년(160만154대)보다 2.5% 감소했다.

수출은 더 부진하다. 작년 한 해 국산차 수출량은 253만194대로, 전년(262만1715대) 대비 3.5% 줄며 2013년부터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생산도 최근 7년래 최저 수준까지 추락,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411만4913대로 1년 사이(2016년 422만8509대) 2.7% 감소했다. 한국은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생산이 감소한 국가다.

◇최재호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95.19 (+9.81)
- ↓ 금리 (국고채 3년) 2.28% (-0.02)
- ↓ 코스닥 829.39 (-13.85)
- ↓ 환율 (USD) 1084.50원 (-0.10)

남북 만찬 식탁 오른 '보해 복분자주'

고위급 대표단 회담 만찬주 채택 '화제'... 정상회담 후 10년만

보해 복분자주가 지난 10일 열린 남북 고위급 대표단 회담에서 만찬주로 사용돼 화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지난 10일 통일부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강원도 강릉시 한 호텔에서 열린 이날 만찬에는 조영규 통일부 장관과 김여정 부부장 등 남·북 고위급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만찬 테이블에는 보해 복분자주가 올랐다.

보해 복분자주가 남북이 하나된 자리에 사용된 사례는 과거에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보해 복분자주가 공식 만찬주로 사용됐다. 이에 앞서 2005년에는 APEC 정상 회의에서 공식 만찬주로 선정돼 세계에



로 소개되고 있다.

보해 관계자는 "보해 복분자주는 지난 200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만찬주로 선정된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 등 굵직한 국가 행사에 만찬주로 선정되는 등 품질과 맛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정통와인으로 서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국세청, 남구 아동시설 찾아 '설 나눔'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은환)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13일 광주 남구 송하동 소재 아동양육시설 '신애원'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사진>

이은환 청장은 "앞으로도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적극 후원하고 배려해 나가면서, 지속되는 경제불황 등으로 일어붙은 기부문화에 따뜻한 훈풍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한부모 가정, 영세·독거 노인,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후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 및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인터넷진흥원 "지역인재 채용 확대"

나주혁신도시 입주 기업... "광주·전남 밀착경영 본격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광주·전남 지역사회를 위한 밀착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한 인터넷진흥원은 13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ICT(정보통신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사회 밀착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진흥원은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지역 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 구매할 때 지역 업체들과 상생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정부 정책에 맞춰 지역인재 채용비율도 30%

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과 결과 조치를 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지역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협의회 구성·운영 ▲실무자·일반인 대상의 정보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활용 실무 교육 실시 ▲인터넷 신산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협력위원회 발족·운영 등을 하기로 했다.

김석환 원장은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고민하겠다"며 "그 결과물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16621@

기아차, 6년만에 2세대 K3 공개

27일 출시... 사전계약 접수

기아자동차가 6년 만에 준중형 세단 '올 뉴 K3<사진>'을 내놓았다. 기아차는 13일 올 뉴 K3 보도발표회를 열고 사전계약을 받기 시작했다. 정식 출시일은 오는 27일이다.

올 뉴 K3는 지난 2012년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것으로, 기존의 역동성에 볼륨감과 고급스러

움을 더한 게 특징이다.

전면부는 럭셔리 스타일을 기반으로 기아차의 상징인 호랑이로 형상 그릴과 엑스(X)타 형태로 교차한 주간주행등, 풀(Full) LED 헤드램프, 범퍼 하단의 대형 인테이크 그릴 등이 적용됐다.

측면부는 쿠페형 루프라인이 강조됐다. 후면부에는 리어램프와 트렁크 가니쉬, 볼륨감을 강화한 리어 범퍼 등이 적용됐다.

차체 크기는 전장 4640mm, 전폭 1800mm, 전고 1440mm, 축거(휠베이스) 2700mm로 기존 모델보다 커졌다.

특히 경차급에 해당하는 15.2km/l (15인치 타이어 기준)의 연비를 인증받았다. 기존 K3 모델 대비 약 10% 이상 개선된 수치다.

안전 사양으로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를 기본 장착했으며 운전자 주의 경고(DAW),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후측방 충돌 경고(BCW) 등을 적용했다.

기아차는 올 뉴 K3 사전계약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드라이브와이즈를 무상 장착해주는 이벤트와 출고 고객 선착순 2만명을 대상으로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보증기간을 5년 연장(5년·10만km→10년·10만km)하는 '스마트스트립 더블 개런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세관 무안공항 면세물품 집중단속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설명절을 맞아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 주류(1병 1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필련 200개비 이내), 향수

(60ml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600달러)이외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광주본부세관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휴대품 검사 비율을 늘리고, X-Ray 검사 및 개장검사를 강화하는 등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엄정 과세처리함으로써,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재호기자 lion@

특이방수

2중외벽 단열방수, 2중내벽 방수, 방수막 내구성과 내일성, 6년이상 보증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관공시 옥상시공, 단열방수, 방수막 내구성과 내일성, 6년이상 보증

방수: 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탤런트 이영 후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아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징점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난방비 절감, 예-4지 활막 건축 내외장재 패터너디자인, 천 엔디.19의 컬러로 디자인
- 2/ 외벽에 옷 입혀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용 향기 없애고 새 건물처럼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방용 외벽 시트!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아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징점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난방비 절감, 예-4지 활막 건축 내외장재 패터너디자인, 천 엔디.19의 컬러로 디자인
- 2/ 외벽에 옷 입혀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용 향기 없애고 새 건물처럼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방용 외벽 시트!

광주전남대리점 | 0621 511-0444 |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 www.ipalg.co.kr

[주]아파엘지종합특수방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 한정식 아리랑하우스는 2월 14, 15, 16일 휴무입니다. 17일(토) 정상영업합니다.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어온

1등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UJANG HOTEL